

# 집회서의 구약 본문 사용과 전승 수용에 관한 연구: 모세 찬양시(집회서 45:1-5)를 중심으로\*

박성현(우리말씀연구소)

## 1. 들어가는 말

성경은 오랜 시간을 거쳐 다양한 본문과 전승이 유통되는 시기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다.<sup>1</sup> 성경 본문 전달의 기나긴 역사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문헌 연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성경 본문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살피는 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더불어 중간기 문헌 연구는 그 당시를 살아가던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성서 이해,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특성이 신약 시대까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성서를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 본 연구는 필자의 학위 논문인 「집회서 영웅찬양시 비교분석 연구-본문비평과 전승비평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김혜: 부산장신대학교 대학원, 2025), 96-112를 발전 확장하여 새롭게 집필한 논문임을 밝힘.

1 김정훈, 「구약성경의 본문비평」, 「구약논단」 31권 2호 (2025), 281-322.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중간기 문헌인 집회서도 외경으로 분류되지만, 이 책의 라틴어 명칭인 ‘에클레시아스티쿠스’(Ecclesiasticus/교회의 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부 키프리아누스 이후부터는 새로이 입교한 신자들의 교리 교육에 사용되면서 유딧기나 토빗기 등과 더불어 ‘교회의 책’으로 널리 사랑받았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기를 지나면서 집회서는 히브리어 정경 우선 원칙에 따라 정경의 위치에서 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에 카이로의 벤-에즈라 회당 게니자와 쿨란, 그리고 마사다 등에서 집회서 히브리어 본문이 발견되면서 집회서 본문의 고대성을 인정받게 되었고<sup>2</sup> 그 이후에는 중간기 시대의 유대교 이해 뿐 아니라, 구약 본문 이해,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에서도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sup>3</sup> 하지만, 지금까지도 개신교계는 중간기 시대 문헌 가운데 상당수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경 전반뿐 아니라 집회서 연구에도 거리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집회서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별히 집회서에서 구약의 본문들과 전승들이 어떻게 수용

- 
- 2 집회서 필사본의 발견과 연구의 역사는 길고 복잡하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Paul E. Kahle, *The Cairo Geniz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3-12를 참조할 만하다. 더불어 Frédérique Michèle Rey/Eric D. Reymond, *A 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Manuscripts of Ben Sira with Translations and Philological Notes* (Leiden: Brill, 2024)의 서문과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김정훈 외 옮김),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20), 55-56. 원제는 Alexander Achilles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 3 히에로니무스와 종교 개혁자들이 집회서를 외경으로 치부하기는 하였지만 신앙인의 신앙 함양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여겼기에 집회서를 비롯한 외경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다. 이 내용과 더불어 외경과 집회서의 역사와 그 위치, 지금 시대에 외경을 연구하는 일에 관한 의의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David A. deSilva, *Introducing the Apocrypha: Message, Context, and Significanc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8), 1-31. 유대교 정경과 개신교 정경의 의미, 외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음의 책도 참고할 만하다. Lee Martin McDonald, *The Biblical Canon: Its Origin, Transmission, and Authority*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7), Part 1: "Scripture and Canon." (전자책, ebook ed., 2013).

되고 활용되었는지를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집회서 안에는 여러 구약의 본문과 전승들이 스며들어 있지만, 여기서는 구약의 전승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구약과의 관련성을 비교적 잘 관찰할 수 있는 집회서 44장 16절부터 50장 21절까지의 본문, 이른바 ‘영웅 찬양시’를 다룬다. 대략 일곱 장에 달하는 이 영웅 찬양시에는 구약에 나타나는 족장, 제사장, 왕, 예언자, 그리고 벤-시라 시대의 대체사장이었던 시몬 2세 등 총 34명의 인물과 특정 집단 다섯 집단을 포함해 총 39명의 인물과 집단을 찬양하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영웅 찬양시 가운데 ‘모세 찬양시’(집회 45:1-5)를 예시로 집회서의 구약 사용의 특징을 분석한다. 집회서는 ‘지혜는 곧 율법’이라는 공식으로 구약의 다른 지혜 문학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독특한 지혜 인식을 드러낸다.<sup>5</sup> 이와 더불어 제사장 계통의 인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성 역시 발견되는데, 벤-시라와 그리스어 번역자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직접 수여자인 모세를 활용하여 집회서의 중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제사장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을 시도한다. 따라서 모세를 살펴보는 일은 집회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주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집회서가 보여주는 독특한 성

4 영웅 찬양시에는 특정한 인물의 훌륭한 업적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물을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중요 인물이지만 언급하지 않는 인물들도 있다. 집회서가 찬양하고 있는 인물이나, 집단, 그리고 비난받는 인물과 찬양시 안에는 다루어지지 않는 인물들과 집단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천사무엘, “집회서의 이스라엘 영웅 찬양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권 1호 (2005), 29-51.

5 Patrick W. Skehan/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9; New York: Doubleday, 1987), 75-77. 벤-시라의 율법 인식은 집회서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집회서 저작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장: (10)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시고, 교훈과 지혜에 대한 글을 몸소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이 글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여 더욱 진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가톨릭 성경에서 발췌])

경 해석 방식들 또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집회서는 이러한 해석적 시도를 추구하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과 관련 있는 본문과 전승을 끌어와 구약 전통을 충실하게 보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인물과 상관이 없는 구약의 다른 전승들을 끌어와 획기적인 방식으로 당대의 인식 가운데 반영하기도 한다. 우리는 모세 찬양시 안에서도 이러한 영웅 찬양시의 해석적 특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sup>6</sup>

본 연구에서는 본문비평과 전승 비평 방법론을 사용한다.<sup>7</sup> 본문비평은 집회서 영웅 찬양시 안에 언급된 구약 인물들의 본문 진술이 다른 구약 속 해당 인물의 평행 본문과 서로 다를 경우에 두 본문을 비교하여 본문이 의도적으로 수정되거나 혹은 필사 오류로 본문이 변화된 양상들을 확인하여 본문 필사 전통을 되짚어 보는 방법론이다.<sup>8</sup> 더불어 여기서는 집회서 히브리어 본문과 집회서 칠십인역, 또한 다른 구약의 칠십인역 본문과 집회서 칠십인역 본문과 서로 비교하여 본문의 전통

- 
- 6 집회서가 구약을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박장훈, “Ben Sira’s Use of the Adam Story in Gen 1-3”, 『구약논단』 26권 3호 (2020), 202-227을 들 수 있다. 박장훈은 이 논문에서 집회서가 창세기 1-3장 이야기를 활용하여, 성전과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새 창조적 인류(아담)라는 신학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더불어 히스기야 터널과 관련한 구약의 증언과 집회서의 히스기야 찬양시 본문을 함께 비교 연구한 임봉대의 논문도 중요한 국내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임봉대, “집회서 48:17-22의 히스기야 터널에 관한 고찰: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의 본문 비교”, 『성경원문연구』 46권 (2020), 47-66.
- 7 여기에서 사용한 본문비평과 전승비평 방법론의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73-391.
- 8 본문비평에서는 본문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를 의도적(intentional) 수정과 비의도적(unintentional) 오류로 나눈다. 의도적 수정은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적인 표현을 회피하거나 본문을 조금 더 완곡한 어투로 변환(euphemism)하려는 경우에도 발생하고 다신론적(polytheistic) 뉘앙스를 제거하려는 의도 등 여러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비의도적 오류는 비슷한 자음을 혼동하거나(graphic similarity), 자음을 바꿔쓰는 경우(metathesis), 혹은 자음을 실수로 빠트리는 경우(haplography) 등 많은 상황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3rd ed.), 191-262를 참조하라.

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번역본 사이의 이형 탐구는 히브리어 본문  
의 이형 원인을 규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승 비평 방법은 집회서에 나타나는 구약 인물들의 진술이 동일  
인물의 구약 본문 진술과는 다른 전승을 사용할 때, 서로 다른 구약 전  
승들이 집회서에 사용된 이유를 밝혀 신학적 의도를 탐색하는 방법론  
이다. 이때는 구약 다른 책의 본문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벤-시라와 그리스어 번역자는 다른 구약에 있는 본문을 끌어와  
자신이 언급하는 인물을 찬양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sup>9</sup> 때로는 구약  
의 다른 본문뿐 아니라,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술로 해당 구약  
의 인물을 찬양할 때도 있다. 이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중간기 시대에 나타난 다른 문헌 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중간기 시대의 다른 여러 문헌을 살펴보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벤-시라 시대의 사회적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벤-시라의 시대에 통용되던 사회적 이상이 구약  
의 인물을 평가하는 데 투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처  
럼 본문비평과 전승비평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벤-시라와 집회서의 그  
리스어 번역자가 구약의 본문을 수용하는 방식과 인물을 해석하는 특  
징을 밝히고 벤-시라와 번역자가 활용했던 구약성경 전통의 특정 언어  
표현을 분석하여 중간기 시대 구약성경 본문과 전승 사용의 양상을 살  
펴보고자 한다.<sup>10</sup>

---

9 Benjamin G. Wright III, "The Use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Tradition in Ben Sira's Praise of the Ancestors", Géza G. Xeravits/József Zsengellér(eds.), *Studies in the Book of Ben Sira* (Leiden: Brill, 2008), 183-207.

10 개신교계에 집회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필사본과 편집본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구약 본문과 전승이 집회서와 어떻게 연결되고 이해되었는지를 밝히는 신학적 작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김정훈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김정훈, "집회서 영웅 찬양시 본문 전통에 관한 연구: 다윗 찬양시(집회 47장 2-11절)를 보기로", 「구약논단」 30권 2호 (2024), 76-105.

## 2. 모세 찬양시(집회서 45:1-5) 본문 분석과 비교

앞서도 짧게 언급했듯이, 19세기 말부터 비롯한 집회서 히브리어 본문의 발견과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집회서 히브리어 본문은 집회서 그리스어 본문 전체와 비교했을 때 대략 68%에 이르는 분량이 복원되어 편집되었다.<sup>11</sup> 대부분의 필사본은 20세기에 발견되어 편집되었으나 드물게는 2000년대 이후에도 여러 경로로 집회서 히브리어 본문이 발견되기도 했다.<sup>12</sup> 집회서 필사본은 필사 형식과 서체 등을 고려하여 A, B, C, D, E, F로 크게 분류하는데 영웅 찬양시는 Ms. B로 분류된 필사본 문치에 남아 있고 마사다에서 발견된 필사본(Mas VII)에도 일부 남아 있다(집회 44:1-18).<sup>13</sup> 따라서 아래 모세와 관련한 본문은 모두 Ms. B에 속한 본문이다.<sup>14</sup>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필사 편집본은 Ms. B의 경우 레이(Frédérique Michèle Rey)와 레이먼드(Eric D. Reymond)가 편집한 집회서 히브리어 편집본을 사용하고<sup>15</sup> 그리스어 본문은 치글러(Joseph Ziegler)가 편집한 집회서 그리스어 비평편집본을 사용한다.<sup>16</sup> 특별히

11 이 부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주 2번을 참조하라.

12 대표적으로 2016년에는 레이먼드(Eric D. Reymond)가 집회서 Ms. A 필사본에 해당하는 T-S 12. 863(MS A I r) 필사본 단편에서 집회서 1장 9-12절의 내용을 추론해 낸다. 이 필사본 단편은 집회서 3장 6절부터 4장 10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편의 1~4번째 줄에 희미한 형태를 띤 글자 일부가 본문과 겹쳐 있다. 레이먼드에 따르면 이 흔적은 앞선 장을 기록할 때 사용한 잉크가 다음 장에 눌러 묻은 흔적인데(offset letters), 그는 이 흔적을 분석하여 미발견 집회서 1장 9-12절의 히브리어 내용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Eric D. Reymond, "New Hebrew Text of ben Sira Chapter 1 in MS A(T-S 12.863)", *RevQ* Vol. 27, No. 1(105) (2015), 83-98을 참조하라.

13 필사본과 번역본들의 분류는 Patrick W. Skehan/Alexander A. Di Lella, *유태*, 51-62를 참조하라.

14 필사본들의 분류와 그 필사본들의 범위는 참조하라. Pancratius C. Beentjes,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68; Leiden: Brill, 1997), 13-19.

15 Frédérique Michèle Rey/Eric D. Reymond, *유태*, 148-150.

16 Joseph Ziegler(ed.), *Sapientia Iesu Filii Sirach*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Ms. B 본문의 작은 올림 글자는 필사본의 난외주에 기록된 본문을 옮긴 것이고 대괄호 속의 본문은 현재는 소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의 미하는 표시로 이러한 원칙도 모두 레이와 레이먼드의 편집본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1절]<sup>17</sup>

Ms. B	
מֹשֶׁה זָכַר לְטוֹבָה:	לְהִים וְאֲנָשִׁים [...]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 모세! 그에 대한 기억이 복되기를!	
LXX	
ἡγαπημένον ὑπὸ θεοῦ καὶ ἀνθρώπων Μωυσῆν, οὗ τὸ μνμόσυνον ἐν εὐλογίαις.	
(하나님은) <sup>18</sup>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세를 (나오게 하셨는데), 그는 복된 기억을 가진 자였다.	

1절 처음 부분은 소실되어 정확한 본문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칠십인역과 45장 1절이 기록된 Ms. B XIVr의 본문 소실 부분의 여백 공간을 통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에게’, 혹은 ‘~의

1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335.

- 17 랄프스는 이삭과 야곱을 찬양하는 44장 23절 일부를 45장 1절의 시작으로 여겼지만, 치글러 판본뿐 아니라, 레이와 레이먼드의 Ms. B 편집본, 불가타도 45장 1절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잡고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가 사용한 편집본의 원칙에 맞추어 치글러와 Ms. B 그리고 다른 번역본의 절 구분을 따른다.
- 18 본문에는 주어가 나오지 않으며 본문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앞선 본문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본문도 하나님이라는 직접 주어를 사용하지 않고 삼인칭 동사를 사용하면서 주어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번역에서 사용한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삽입이다.

해'라는 뜻의 그리스어 ὑπὸ(회포)는 히브리어 전치사 מִן(민)의 비분리형 מִ(메)였을 것이며 집회서 45장 1절과 동일하게 ἡγαπημένον(헤가페메논/사랑받는 자)의 원형인 ἀγαπάω(아가파오)의 수동 분사가 사용된 신명기 21장 15절의 히브리어 본문이 אַחֲרַיִם(아후바)인 점을 고려하면 소실된 부분의 히브리어를 [אֵה(ו) בַּה מֵא] (아후바 메)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소실된 본문을 통해 히브리어 본문을 칠십인역과 비교하면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은 거의 상응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짝을 이루는 형태는 구약에서 요담의 감람나무 비유(삿 9:9 וְאֲנָשִׁים וְאֱלֹהִים וְיִכְבְּדוּ / 예카브도 엘로힘 바아니섬)와 포도나무 비유(삿 9:13 וְאֲנָשִׁים וְאֱלֹהִים הַמְשַׁמָּה / 하므싸메아흐 엘로힘 바아니섬)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벤-시라는 아마도 요담의 우화가 떠오르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 듯하다.<sup>19</sup>

לְטוֹבָה זָכְרוּ (지크로 르토바/기억이 복되기를)라는 말은 집회서 46장 11절에서 사사들을 찬양할 때도 זָכְרוּ לְבִרְכָה (지크람 르베라카: 그들의 기억이 복되기를!)의 형태로 한 번 더 등장한다. 집회서 46장 11절에 사

19 Michael Wolt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ume I (Luke 1-9:50)* (Baylor-Mohr Siebeck Studies in Early Christianity;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Tübingen: Mohr Siebeck, 2016), 154. 볼터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이 집회서 45장 1절과 사무엘상 2장 26절 (וְטוֹב גַּם עִם-יְהוָה וְגַם עִם-אֲנָשִׁים /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좋았다)과 잠언 3장 4절 (וְשָׂכַל-טוֹב בְּעֵינֵי אֱלֹהִים וְאָדָם) / 사람과 하나님의 눈에 좋게 여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회서 본문의 내용이 사무엘상과 잠언과 관련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이 집회서의 히브리어 본문과 모두 같은 형태로 짝을 이루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는 사사기 9장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사기의 표현을 벤-시라가 차용했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사사기 9장 7~15절의 요담 우화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올바른 지도자상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모세를 올바른 지도자로 그리려는 벤-시라의 의도는 요담 우화의 주제적 측면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벤-시라는 구약의 특정 언어를 사용해 구약과 집회서의 상호 텍스트성을 구축하려는 경향성을 자주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성에 관해서는 Benjamin G. Wright III, 윗글, 191-194를 참조하라.

용된 “그들의 기억이 복되기를”이라는 이 문구는 후대 유대교의 경건한 기도문에서 죽은 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 사용되던 관용구인데, 45장 1절에 기록된 형태는 집회서 46장 11절에 사용되는 관용구의 축약된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sup>20</sup>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집회서 45장 1절 לטובה(르토파)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모세를 일컬을 때는 사용되지 않으며 대부분 비인칭 대상의 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sup>21</sup> 아마도 벤-시라는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보려고 한 듯하다.<sup>22</sup>

[2절]

Ms. B
ויאמרו בנרומים: כמוראם      להים [.....] ייב יי
여호와께서 [.....] 치게 하셨다. [...] 나뭇가에서 그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두려운 것들을
LXX
ὠμοίωσεν αὐτὸν δόξῃ ἁγίων καὶ ἐμεγάλυνεν αὐτὸν ἐν φόβοις ἐχθρῶν.
그분은 그를 거룩한 이들의 영광과 같게 하시고, 그를 원수들의 두려움 가운데 위대하게 하셨다.

20 Patrick W. Skehan/Alexander A. Di Lella, 윗글, 510-511.  
 21 빌헬름 게제니우스, “טוב”, 『히브리어·아람어 사전』(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277.  
 22 맥(Burton Mack)은 벤-시라가 모세를 독특한(sui generis) 위치에 둔다고 분석하면서도, 모세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placed in his hands) 후대의 제도적 직분들로 ‘옮기는’(assigned to other offices) 중재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세가 아무리 높은 위상을 가졌더라도, 그 위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적 역할에 있다. Burton L. Mack, *Wisdom and the Hebrew Epic: Ben Sira’s Hymn in Praise of the Fath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30-34.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omega\mu\acute{\omega}\iota\omega\sigma\epsilon\nu\ \alpha\upsilon\tau\omicron\nu\tau\omicron\nu\delta\acute{\omicron}\xi\eta\ \acute{\alpha}\gamma\iota\omega\nu$ (호모이오센 아우톤 독세 하기온/그분은 그를 거룩한 이들의 영광과 같게 하시고) 구절을 삽입했다는 사실이다.<sup>23</sup>

칠십인역이 보여주는 모세의 신성은 번역자의 순수한 창작물은 아니다. 모세가 율법 수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나, 신성한 존재로 그려지는 경향은 쿰란의 문헌(4Q374)나 필로의 글(모세의 생애 1:1, 158), 요세푸스 저작물(유대고대사 3:230)뿐 아니라, 기원전 1~2세기의 여러 저작물과 미드라쉬에서도 발견된다.<sup>24</sup> 더불어 히브리어 본문 또한, 높은 곳에 올라선 모세의 모습을 통해 모세의 특별함을 묘사한다.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섰다’는 표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의 영광을 묘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로써<sup>25</sup> 파라오 앞에서 거세 될 모세의 모습을 그리는 출애굽기 4장 16절과 7장 1절과 시편 8편 6절이  $\omega\mu\acute{\omega}\iota\omega\sigma\epsilon\nu\ \alpha\upsilon\tau\omicron\nu\tau\omicron\nu\delta\acute{\omicron}\xi\eta\ \acute{\alpha}\gamma\iota\omega\nu$ (호모이오센 아우톤 독세 하기온/그

23 Ms. B의 소실된 부분에 본래는 그리스어 번역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본문이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Takamitsu Muraoka, *Wisdom of Ben Sira* (Orbis Biblicus et Orientalis 16; Leuven: Peeters, 2023), 676을 참조하라.

24 제 2성전기의 유대교에서 모세는 단순한 율법 수여자를 넘어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 대리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 사실과 관련해 나즈만(Hindy Najman)은 이 시기 문헌들이 헬레니즘 시대의 변화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대적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모세의 이름과 시내산 계시에 권위를 담아내는 ‘모세 담론’(Mosaic Discourse)을 전략으로 채택했다고 말한다. 나즈만은 이 담론의 네 가지 핵심 사항을 ① 오래된 전승의 재작업을 통한 권위 전이 ② 새로운 텍스트에 토라 지위 귀속 ③ 시내산 계시의 재현을 통한 현재성 강조 ④ 모세를 특별한 직분과 형상을 지닌(as divine revelation or dictation and as prophecy or inspired interpretation)자로 묘사하는 특징’으로 꼽는다. 따라서 집회서 모세를 “거룩한 이들의 영광과 같게” 만들었다는 표현은 이러한 모세 담론의 네 번째 특징, 곧 모세를 특별한 이로 그리면서 그를 통해 전달된 율법, 또는 제사장직에 절대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사학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Hindy Najman, *Seconding Sinai: The Development of Mosaic Discourse in Second Temple Judaism* (Leiden: Brill, 2003), 16-19.

25 James L. Kugel, *The Bible as It Was* (2nd ed.;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311-314.

분은 그를 거룩한 이들의 영광과 같게 하시고) 동일한 표현의 기초가 된다.<sup>26</sup>

또한 그리스 번역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원수”(ἐχθρῶν, ἐχθρόν)라는 말이 첨가된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어 필사본의 소실된 부분의 언어를 원수(אוֹיֵב)로 상정해 본다면, 히브리어 필사본과 헬리어 필사본의 번역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2절 본문은 모세의 신성을 주장하는 그리스어 추가 번역을 제외하면 주 본문과 난외주의 모두가 그리스어로 성실하게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3절]

Ms. B	
:ויחזקהו לפני מלך:	ברברו בר [...] מהר : [...] ויר [...] ויצוהו [...] ל [...] ]
그의 말로 말로[.....] 빠르게 [.....].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왕 앞에서 강하게 하셨다. 그분이 그것을 명했다. [·] [...] [.....]	

26 쿠겔(Kugel)은 출애굽기 4장 16절의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와 7장 1절의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는 신처럼 보이게 해 주마.”라는 표현의 암시가 *ὁμοίωσεν αὐτὸν δόξῃ ἁγίων* (호모이오센 아우톤 독세 하기온)에 있다고 보았다. 스케한과 디렐라는 시편 8편 6(5)절에서 *מַעַט מְאֹלָהִים וְתַחֲסְרוּהוּ מְעַט מְאֹלָהִים* (바테하스래후 메아트 메엘로힘/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집회서 45장 2절 전반절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편 8편 6(5)절에서 *מַעַט מְאֹלָהִים* (메엘로힘)이 그리스어 *παρ ἁγγέλους* (파르 앙겔루스/천사에게)로 완곡히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어 번역에서 *ἄγγελος* (앙겔로스/천사)는 집회서 45장 2절 전반절에서 보듯, *ἅγιος* (하기오스, 거룩한 이)로 번역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스네이스(Snaith) 역시, 이 부분이 하나님과 모세를 동일하게 하는 표현을 자제하기 위하여 *ἅγιος* (하기오스)로 번역했고 이러한 경향은 칠십인 역에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James L. Kugel, 윗글, 311-314, Patrick W. Skehan/Alexander A. Di Lella, 윗글, 510-511과 John G. Snaith, *Ecclesiasticu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220-221을 참조하라.

ἐν λόγοις αὐτοῦ σημεῖα κατέσπευσεν, ἐδόξασεν αὐτὸν κατὰ πρόσωπον βασιλέων. ἐνεσειλατο αὐτῷ πρὸς λαὸν αὐτοῦ καὶ ἔδειξεν αὐτῷ τῆς δόξης αὐτοῦ.

그분께서 그의 말들로 표징을 그쳤고, 그분이 그를 왕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이 그에게 그의 백성들을 향해 명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그에게 보이셨다.

45장 3절은 훼손된 부분이 많아 본문을 정확히 판독할 수 없다. 하지만, 히브리어 필사본의 남겨진 부분과 칠십인역 사이에 일치점이 많으므로 그리스어 본문을 통해 히브리어 필사본의 훼손 부분을 차례대로 추정해 보면, [א] ל [העם] ויר [אה לו כבודו] ..... לפני מלך: .....<sup>27</sup> בד [בריו אותות] מהר ויחזקה 후 리프네 멜레크 바여짜네후 엘 하암 바르에후 에트 케보도/그의 말들로 표징이 빠르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왕 앞에서 강하게 하셨다 ..... 백성들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그에게 보이셨다)로 재구성할 수 있다.

현존하는 히브리어 본문만으로는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칠십인역의 ἐν λόγοις αὐτοῦ σημεῖα κατέσπευσεν(엔 로고이스 아우투 세메이아 카트에스페우센/그분께서 그의 말들로 표징을 그쳤고)로 미루어 보면 3절의 본문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열 가지 재앙이 그쳤음을 찬양하는 본문으로 보인다.<sup>28</sup> 이는 앞선 2절 본문에서 한 차례 등장했던 파라오 앞에 서게 될 모세와 관련한 내용과도 연결된다.

27 소실된 부분의 추측과 관련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다소간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이 내용과 관련한 정보는 Renate Egger-Wenzel, *A Polyglot Edition of the Book of Ben Sira with a Synopsis of the Hebrew Manuscripts* (Leuven: Peeters, 2022), 599-600을 참조하라.

28 Georg Sauer, *Jesus Sirach/Ben Sira* (ATD Apokryphen Bd.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307.

후반 절에는 וַיִּצְוֶהוּ(바에짜베후/명했다; ἐνετείλατό 에네테일라토)라는 동사를 통해 십계명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했다. 특히 그분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이 담긴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sup>29</sup>

[4절]

Ms. B
: [⋯] מכלל בו ויבחר בו באמונתו ובענותו <sup>30</sup>
그의 신실함과 온화함 그의 온화함 때문에 그분께서 그를 모든 [⋯⋯] 가운데 선택하셨다.
LXX
ἐν πίστει καὶ πραύτητι αὐτὸν ἡγίασεν, ἐξέλεξατο αὐτὸν ἐκ πάσης σαρκός.
신실함과 온화함으로 그분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육신 가운데 그를 선택하셨다.

난외주에 ובענותו(우브아느바누토/그의 온화함)는 주 본문의 ובענותו(우브아나바토/그의 온화함)와 뜻이 다르지 않다. 아마도 난외주의

29 Walter T. Wilson, *The Wisdom of Sirach* (ECC; Grand Rapids: Eerdmans, 2023), 432; John G. Snaith, 윗글, 221; Patrick W. Skehan/Alexander A. Di Lella, 윗글, 511.

30 난외주의 기록된 이 히브리어 철자는 주 본문의 ובענותו와 뜻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표현은 구약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으며, 집회서 45장 4절의 난외주에만 나온다. 아마도 이 철자법은 집회서가 최초 기록되었던 기원전 2세기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기원 후 1~2세기부터는 주 본문의 표현보다 ובענותו 형태가 더 흔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 히브리어에도 '검손'이라는 낱말의 철자는 이와 유사하다(ענותות). 이 낱말에 대한 정보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David J. A. Clines, "ענותות",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VI s-p*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504.

필사자는 자신의 시대에 더 익숙한 표현으로 주 본문의 철자를 수정하려고 한 듯하다. 전체적으로 번역은 히브리어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모세의 본문 전승과 관련해 눈여겨볼 점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모세를 평가할 때 사용한 ‘באמונתו ובענותו’(베에무나토 우브아느바토/그의 신실함과 온화함)과 이에 상응하는 칠십인역의 번역 *ἐν πίστει καὶ πραύτητι*(엔 피스테이 카이 프라우테티/신실함과 온화함으로)이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신실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는 없다. 모세가 온화하다는 표현은 민수기 12장 3절에 한번 나타나며<sup>31</sup> 더불어 모세라는 표제어가 붙은 칠십인역 시편 89(90)편 10절에도 사용된다는 점은 눈에 띈다.<sup>32</sup> 더욱이 집회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목으로 *πίστει καὶ πραύτητι*(피스테이 카이 프라우테티/신실함과 온화함으로)와 유사한 *πίστις καὶ πραότης*(피스티스 카이 프라오테스/믿음과 온유)<sup>33</sup>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πίστει καὶ πραύτητι*(피스테이 카이 프라우테티)는 시편 89(90)편 10절과 집회서 1장 27절의 표현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표현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려 한 듯 보인다.

31 개역개정에는 모세의 ‘온유함’이라 번역했다.

32 칠십인역 시편 89(90)편 10절 후반절은 마소라 본문과 본문 형태가 전혀 다른데 마소라 본문은 *הַפָּאָרָה שֶׁנִּזְכָּרָה*(키 가즈 히쉬 바나우파/급히 지나가서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이지만, 그리스어 본문은 *ὅτι ἐπήλθεν πραύτης ἐφ’ ἡμᾶς καὶ παιδευθησόμεθα*(호티 에프엘텐 프라우테스 에프 헤마스 카이 파이테우테조메타/우리 위에 온화함이 내리면 우리가 징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다. 시편 89(90)편 10절의 전, 후반절 인과관계로 따져보면 그리스어 본문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쉽게 파악되기에 히브리어 본문이 더 오래된 본문 형태라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칠십인역의 번역은 직역이나 의역 어느 쪽으로도 볼 수 없는 본문 형태이기에 다른 히브리어 대본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만일 그러하다면 4절의 히브리어 낱말 *ענוה*가 포함된 형태의 다른 형태의 필사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3 *πραύτητι*의 원형인 *πραύτης*와 *πραοτης*는 형태가 다르나 같은 뜻을 지닌 낱말이다. Takamitsu Muraoka, “*πραύτης*”,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euven: Peeters, 2009), 582.

두 번째,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번역어 ἡγίασεν(헤기아센: 거룩하게 하셨다)이다. 히브리어 본문만 놓고 보면 באמונתו ובענותו(베에무나토 우브아느바토)는 동사 없이 다음 구절인 ויבחר(바이브하르/선택하셨다)와 연결되는데, 동사가 없어 앞선 문장은 완결된 형태라 말하기 어렵다. 아마 칠십인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표현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ἁγιάζω(하기아조)는 특별히 안식일 규정, 제의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제의적 상황에 맞도록 무엇인가가 변화되는 과정과 그 완결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sup>34</sup> 더불어 이 표현이 출애굽기 28장 41절에서 아론과 그 후계자들의 제사장 위임식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표현은 모세를 제사장계의 중요한 인물로 신학화하려는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35</sup> 그러므로 이러한 낱말의 삽입은 45장 전체와도 잘 어울린다. 45장 전체는 모세 이후 대제사장직을 역임했던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과 관련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자의 ἁγιάζω는 모세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를 제사장 계보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임을 밝히는 신학적 동기로 작용한다. 그와 동시에 모세를 “신실함과 온화”한 인물로 그리면서 앞으로 나올 제사장들 또한 제의적으로, 인품 면에서 올바른 이로 그리고자 하는 의도 또한 품고 있다.

34 Takamitsu Muraoka, *윗글*, 5.

35 אֱתוּ וּמִשְׁחַתָּ אֹתָם וּמִלֹּאֲתָ אֶת־יָרְדָם וְקִדְשֵׁתָ (καὶ ἁγιάσεις) אֹתָם וְכִהְנֶה לִּי (잇토 우 마사흐타 오탐 우 밀레타 에트 야담 브 키타쉬타 오탐 브 키하누 리/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일을 맡겨라.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해라) 출애굽기 28장 41절 후반 절.

[5절]

Ms. B	
ויגישו לערפל: תורת חיים ותבונה ועדותיו ומשפטיו לישראל:	וישמיעהו את קולו ויחן וישם בידו מצוה ללמד ביעקב חקיו
그분은 그에게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짙은 어둠 속으로 그를 이끌고 가 셴다. 그리고 그분은 슬기롭고 살아있는 율법과 계명을 그의 손에 두셨다. 주셨다. 이 는 야곱에게는 그분의 규례와 증거를 이스라엘에는 그분의 법을 가르치기 위 함이다.	
LXX	
ἠκούτισεν αὐτὸν τῆς φωνῆς αὐτοῦ καὶ εἰσήγαγεν αὐτὸν εἰς τὸν γνόφονκαὶ ἔδωκεν αὐτῷ κατὰ πρόσωπον ἐντολάς, ὄνμον ζωῆς καὶ ἐπιστήμης, διδάξαι τὸν Ἰακωβ διαθήκην καὶ κρίματα αὐτοῦ τὸν Ἰσραηλ.	
그분은 그에게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를 어둠 속으로 이끌고 가셨 다.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얼굴을 맞대고 계명들을, 슬기롭고 살아있는 율법 을 주셨다, 이는 야곱을 계약으로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법으로 가르치 기 위함이다.	

두 본문의 히브리어와 칠십인역 차이는 크지 않다. 두 본문 사이에서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의 첫 번째 난외주의 ויחן(바이텐/그분은 ... 주셨다)을 칠십인역에서도 ἔδωκεν(에도켄/그분은 ... 주셨다)으로 지지한다는 점이다. 구약에서는 ‘계명을 두었다’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계명을 주었다’는 표현만 사용되어서(출 24:12; 왕상 9:6; 대하 7:19; 30:12; 느 9:13; 10:29), 다른 히브리어 대본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하지만 칠십인역에서 종종 ׀שׁ은 δίδωμι로 번역되기에(출 4:11; 15: 21; 21:13; 수 24:7; 25; 왕상 22:15; 시 38[39]:8; 사 42:12; 47:6; 51:23; 53:10; 59:21; 60:17; 61:3; 렘 25:9; 49:15; 겔 29:21; 단 11:17)<sup>36</sup> ἔδωκεν은

칠십인역 히브리어 대본상의 문제로만 보기는 힘들며, 번역이 가능한 범주 안에서의 번역어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난외주의 표현은 성경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선택하거나 칠십인역 혹은 칠십인역 전통을 따르는 다른 필사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모세가 짚은 “어둠 속으로”(לְעֵרְפָּל, 라아라벨) 들어가는 장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용된다(출 20:21, 신 5:22).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מִצְוָה וְתוֹרָה, 토라 미쯔바 창 26:5, 출 16:28; 24:12, 신 30:10 등), “그분의 규례와 증거”(חֻקֵּי וְעֵדוּתָיו, 후키브 바에두타이브 신 4:45; 6:17; 6:20, 왕하 17:5, 대상 29:19; 34:31 시 99:7), 법(מִשְׁפָּט, 미쉬파트, 출 15:25, 출 21:1; 24:3 등)를 수여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슬기로운’(חֲבוּנָה, 테부나)이라는 낱말이 등장하는 것은 특이하다. 왜냐하면 이 낱말은 구약에서 율법이나 계명을 꾸미는 용어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적성 등의 지식을 뜻하는 용어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sup>37</sup> 특별히 이 용어가 출애굽기 31장 3절, 35장 31절, 36장 1절에서는 회막을 만드는 일로 임명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진 기술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 더욱이 이 낱말은 지혜 문학의 틀 안에서 무지한 자와 반대되는 명철한 자를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욥 12:12; 13; 26:12; 32:11; 잠 2:2; 3; 6:11; 3:13; 19 등). 벤-시라는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회막에서 일한 자들과 아론의 후손들을 연결하고 제사장 계보의 인물들에게 율법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36 E. Hatch/H. A. 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Clarendon Press 1897-1906;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1), 317c.

37 빌헬름 게제니우스, *릿글*, 870.

### 3.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성경의 시대와 신구약 중간기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세 전승을 신구약 중간기의 대표적 지혜 문학인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절에서 벤-시라는 모세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묘사한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서 사사기 9장 9절, 9장 13절의 요담 우화에서만 등장하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다. 벤-시라가 이 어구를 의도적으로 차용하여 모세에게 적용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모세를 하나님과 공동체 모두에게 인정받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으로 정립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그에 대한 기억이 복되기를’이라는 관용구는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한 인물로 기리는 기념적인 언어로 기능한다.

2절에서는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 번역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다.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에 존재하지 않는 ‘그분은 그를 거룩한 이들의 영광과 같게 하시고’(ὡμοίωσεν αὐτὸν δόξῃ ἁγίων)라는 구절을 삽입하여, 모세의 지위를 천상의 거룩한 존재들에 가깝게 격상시킨다. 스케한과 디렐라가 지적하듯, 이 표현의 배경에는 시편 8편 6절의 전승이 놓여 있으나, 칠십인역 번역자는 모세를 하나님과 직접 동일시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그를 탁월한 권위를 가진 이로 부각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나즈만이 제시한 ‘모세 담론’(Mosaic Discourse)의 맥락, 곧 모세를 특별한 중재자적 형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와 연결된 율법과 제사장직에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2성전기 유대교의 수사학적 전통과 깊이 맞닿아 있다.

3절은 히브리어 필사본의 훼손이 심하여 전체 재구성이 어려우나, 칠십인역과의 비교를 통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열 가지 재앙의 종식과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발휘한 권능,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출 33:18)이라는 세 가지 출애굽 전통이 압축적으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 분석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발견은 4절에서 드러난다.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룩하게 하셨다’(ἁγιασεν)라는 동사를 모세의 품성을 묘사하는 ‘그의 신실함과 온화함’(בְּעֲנוּתוֹ וּבְאַמּוּנָתוֹ)이라는 표현 뒤에 삽입하였다. ‘헤기아센’은 출애굽기 28장 41에서 아론과 그 후계자들을 제사장직에 위임하는 성별 의식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제의적 용어이다. 칠십인역 번역자는 여기서 민수기 12장 3절에 나타나는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결합함으로써, 모세를 단순히 성품이 뛰어난 지도자로 그리는 것을 넘어 아론 제사장 계보 전체의 기원으로 설정한다. 맥이 잘 설명했듯이 모세는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하는 특별한 명분을 지닌 독보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5절에서 벤-시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율법을 ‘슬기로운’(תְּבוּנָה) 것으로 그린다. 이 ‘슬기’ 혹은 ‘명철’이라는 어휘가 출애굽기 31장 3절, 35장 31절, 36장 1절에서 성막 제작에 임명된 장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기술적 역량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벤-시리는 성막 봉사와 결부된 전문적 지혜의 언어를 율법 수여 장면의 의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율법과 성막, 나아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계보를 하나의 신학적 체계 안에 통합한다. 이를 통해 집회서는 ‘지혜=율법=제사장직’이라는 삼중 등식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장 권위에 율법 전통 전체의 무게를 실어주는 효과를 창출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집회서는 구약의 모세 전승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반복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 사이에서 확인되는 의도적인 어휘 삽입과 전승 결합을 통해 모세를 아론 제사장 전통의 신학적 기원이자 대제사장직의 토대로 보이도록 체계적으로 본문을 재구성하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사사기 요담 우화의 언어, 출애굽기 제사장 위임 용어, 성막 장인의 기술적 지혜 어휘, 그리고 민수기의 ‘온유함’ 전승을 촘촘하게 엮어내는 집회서의 편집 작업은, 모세의 절대적 권위에 근거하여 당대 예루살렘 제사장직의 정통성과 탁월성을 선포하려는 명확한 신학적·수사학적 전략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구약 중간기의 성서 본문 전승이 단순한 필사나 번역의 과정이 아니라, 각 시대 공동체의 신학적 필요와 사회적 상황이 능동적으로 반영된 ‘창조적 재해석’의 과정이었음을 구체적인 본문 증거를 통해 실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신교 학계에서 정경 외부 문헌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온 집회서 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며, 지혜·율법·제사장직이 어떻게 하나의 신학적 체계로 통합되었는지에 관한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두 가지의 후속 연구 필요성을 환기한다. 먼저 중간기 시대 본문 연구는 앞서도 밝힌 바대로 신약의 영향력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별히 집회서의 신약 사용은 신약 본문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sup>38</sup> 이와 관련해서는 본문에서 한 차례 언급했듯이 누가복음 2장 52절과 집회서 45장 2절의 관련성을 탐색한 바 있으며, 집회서 영웅

38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제자들을 지혜로 초청하는 집회서 51장 23절과 마태복음 11장 28-30절, 율법과 회막을 언급하는 집회서 24장 10절, 23절과 히브리서 9장 1-10절 그리고 나쁜 아내의 행실을 비난하는 집회서 25장 23절과 히브리서 12장 12절 본문 사이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Paul Ellingworth, *The Epistle to the Hebrew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3), 657-658, Craig R. Koester, *Hebrew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6; New York: Doubleday, 2001), 405-406.

찬양시와 히브리서 11장과의 장르 관련성 연구도 중요한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sup>39</sup>

두 번째, 본 연구는 모세 찬양시에 한정된 분석에서 출발하였으나, 영웅 찬양시의 다른 인물들 그리고 집회서 전체의 심화된 본문비평·전승비평 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집회서 전체의 총체적인 신학 체계와 그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해석 전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_\_\_\_\_, “구약성경의 본문비평”, 「구약논단」 31권 2호 (2025), 281-322.

\_\_\_\_\_, “집회서 영웅 찬양시 본문 전통에 관한 연구: 다윗 찬양시(집회 47장 2-11절)를 보기로”, 「구약논단」 30권 2호 (2024), 76-105.

박장훈, “Ben Sira’s Use of the Adam Story in Gen 1-3”, 「구약논단」 26권 3호 (2020), 202-227.

빌헬름 게제니우스, 「히브리어·아람어 사전」(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김정훈 외 옮김),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20). 원제 Fischer, Alexander Achilles,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

39 집회서 영웅 찬양시는 특정 인물의 죽음이나 사후의 명성, 그 인물이 남긴 유산을 노래하는 그리스의 찬양시 엔코미움(Encomium)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엔코미움은 특별히 남성 영웅들을 찬양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는 이와 같은 성질을 공유한다. 하지만 같은 엔코미움 형식을 지닌 히브리서 찬양시(11장)에는 여성에 대한 찬양이 나온다는 점에서 다른 엔코미움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마카베오 1서 2장 51~60절, 지혜서 10~11장 등 중간기 문헌에서도 엔코미움 형식의 찬양시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David A. deSilva, 윗글, 161-210, Jeremy Corley, *Sirach* (NCBC OT 21;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13), 125, James L. Crenshaw, “The Book of Sirach”, Leander E. Keck/Richard J. Clifford (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Proverbs - Sirach Vol. 5*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838, Walter T. Wilson, 윗글, 428.

-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 임봉대, “집회서 48:17-22의 히스기야 터널에 관한 고찰: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 역의 본문 비교”, 『성경원문연구』 46권 (2020), 47-66.
- 천사무엘, “집회서의 이스라엘 영웅 찬양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권 1호 (2005), 29-51.
- Beentjes, Pancratius C.,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68; Leiden: Brill, 1997).
- Clines, David J. A., “עֲנוּתֵנוּת”,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 VI s-p*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1).
- Corley, Jeremy, *Sirach* (NCBC OT 21;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13).
- Crenshaw, James L., “The Book of Sirach”, Leander E. Keck/Richard J. Clifford (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Proverbs - Sirach Vol. 5*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601-865.
- deSilva, David A., *Introducing the Apocrypha: Message, Context, and Significanc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8).
- Egger-Wenzel, Renate, *A Polyglot Edition of the Book of Ben Sira with a Synopsis of the Hebrew Manuscripts* (Leuven: Peeters, 2022).
- Ellingworth, Paul, *The Epistle to the Hebrew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3).
- Hatch, E./H. A. 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Clarendon Press 1897-1906;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1).
- Kahle, Paul E., *The Cairo Geniz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0).
- Koester, Craig R., *Hebrew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6; New York: Doubleday, 2001).
- Kugel, James L., *The Bible as It Was* (2nd ed.;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Mack, Burton L., *Wisdom and the Hebrew Epic: Ben Sira's Hymn in Praise of the Fath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 Muraoka, Takamitsu,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euven: Peeters, 2009).
- \_\_\_\_\_, *Wisdom of Ben Sira* (Orbis Biblicus et Orientalis 16; Leuven: Peeters, 2023).
- Najman, Hindy, *Seconding Sinai: The Development of Mosaic Discourse in Second Temple Judaism* (Leiden: Brill, 2003).

- Rey, Frédérique Michèle/Reymond, Eric D., *A 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Manuscripts of Ben Sira with Translations and Philological Notes* (Leiden: Brill, 2024).
- Reymond, Eric D., “New Hebrew Text of ben Sira Chapter 1 in MS A(T-S 12.863)”, *RevQ* Vol. 27, No. 1(105) (2015), 83–98.
- Sauer, Georg, *Jesus Sirach/Ben Sira* (ATD Apokryphen Bd. 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 Skehan, Patrick W./Di Lella, Alexander A., *The Wisdom of Ben Sira: A New Translation with Notes,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9; New York: Doubleday, 1987).
- Snaith, John G., *Ecclesiasticu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 Tov, Eman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3rd ed.).
- Wilson, Walter T., *The Wisdom of Sirach* (ECC; Grand Rapids: Eerdmans, 2023).
- Wolter, Michael,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ume I (Luke 1-9:50)* (Baylor-Mohr Siebeck Studies in Early Christianity;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Tübingen: Mohr Siebeck, 2016).
- Wright, Benjamin G., III, “The Use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Tradition in Ben Sira’s Praise of the Ancestors”, Géza G. Xeravits/József Zsengellér (eds.), *Studies in the Book of Ben Sira* (Leiden: Brill, 2008), 183–207.
- Ziegler, Joseph (ed.), *Sapientia Iesu Filii Sirach*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1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 검색어

집회서, 벤 시라, 영웅 찬양시, 본문비평, 전승비평

[ ABSTRACT ]

## A Study on the Use of Old Testament Texts and Tradition Reception in Ben Sira: Focusing on the Praise of Moses (Sirach 45:1-5)

Sung-Hyun Park  
Woori Biblical Institut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Book of Ben Sira, a representative Second Temple wisdom text, receives and reinterprets Old Testament traditions. By analyzing the Praise of Moses (Sirach 45:1-5) within the broader 'Praise of the Ancestors' (44:16-50:21), this research illuminates Ben Sira's distinctive methods of appropriating biblical traditions and their theologic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iestly theology.

Employing textual criticism and tradition criticism, this research compares Hebrew manuscripts (Ms. B) with the Septuagint to identify theological motivations behind textual modifications and examines how Ben Sira synthesizes diverse Old Testament traditions to construct his portrait of Moses.

The verse-by-verse analysis reveals three interpretive layers. First, Ben Sira preserves core Mosaic traditions from Exodus and Deuteronomy. Second, he demonstrates creative reinterpretations through strategic intertextuality: appropriating 'beloved by God and humans' from Judges 9 to establish Moses as an ideal leader, incorporating priestly consecration language (ἡγίασεν) from Exodus 28:41 to position Moses as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Aaronic priesthood, and describing the law as

www.kci.go.kr

‘wise’ (hnbwt) using tabernacle craftsmen terminology, thereby integrating wisdom, law, and priesthood into a unified system. Third, theological divergence emerges between Hebrew and Greek traditions, as the Septuagint adds ‘made him equal to the glory of the holy ones,’ explicitly positioning Moses as the foundation of Aaronic priestly tradition.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Ben Sira systematically theologizes Moses to legitimize the Jerusalem priesthood through Mosaic authority, providing crucial insights for understanding biblical text transmission during the intertestamental period.

key words

Ecclesiasticus, Ben Sira, Praise of the Ancestors, Textual Criticism, Tradition Criticism

투고일 : 2026년 02월 01일

심사일 : 2026년 03월 06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03월 07일

www.kci.go.kr